

연변박물관 확 달라진 모습으로 재개관

여러 민족의 융합 집결 과정 생동하게 전시, 민족단결의 승격된 정신적 삶의 터전으로 구축



▲ 연변박물관 건물 외경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선전부와 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2돐을 맞는 경사스러운 날, 연변박물관은 오랜만에 참신한 모습으로 다시 대중들과 대면했다.

연변박물관의 이번의 전면적인 승격은 9개월여의 정성스러운 준비와 개조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전시 내용을 한층 더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전시 형식에서도 혁신을 보였다. 모든 전시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히 다지기를 주선으로 설계되면서 상세하고 확실한 문헌문물자료 및 다매체 몰입형 체험 등 전시 형식으로 연변의 풍부하고 생동한 력사 문화를 보여주고 연변 대지에서 중화민족의 다원일체 구도가 형성되고 발전해온 력사적 변천을 형상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했다.

연변박물관 이번 전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다지기 연변력사 문화 진렬’을 주제로 근 5,000 평방미터에 달하는 전시 공간에 5개의 전시

청을 설치하고 연변의 돈후한 력사적 바탕과 다채로운 문화 풍모를 전면적으로 전시했다. 구체적인 진렬 내용으로는 ‘중화의 문명, 동변의 서광—고대 선민들의 연변 대지에서의 력사 자취’, ‘관문을 넘어오고 강을 건너와 공동으로

살의 터전 건설—연변 여러 민족이 융합 결집되어 간고하게 개척한 창상의 로정’, ‘피흘려 싸우며 공동으로 적을 무찌르다—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중국공산당의 령도 아래 용감무쌍히 혁명한 빛나는 력사’, ‘민속문화 다같이 이채로움 발산—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서로 융합되며 의지하는

정신적 삶의 터전’, ‘일심으로 당을 따라 휘황을 영속—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의 민족단결진보 추진 사업의 견고한 발자취’ 등 5개 기본 진렬과 3개의 립시전람을 포함한다. 이들 중에 일부 진귀한 문물과 민속 전시품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전시는 ‘중화민족은 한가족, 한마음으



— 법원문화 대중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도록

일전, 연길시인민법원에서 출판한 미니영화 《무포법관》(《无袍法官》) 촬영가동식이 있었다.

《무포법관》은 로부자 피해 책임분정 사건에서 법원이 전문가 배심원 기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의학전문가를 인민배심원으로 특별 초청해 법관을 도와 사건의 진상을 탐색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 사건은 시체 감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민배심원이 자신의 전문 지식에 근거하여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추정한다. 유족은 나중에 법관과 인민배심원의 관련 결론을 받아들이어 소송 취하 처리를 신청한다. 피고도 인도주의적 배려로 원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 이 사건은 종결된다.

《무포법관》은 연길시인민법원의 여러 법관들이 공동으로 극본 창작에 참여했고 대다수 배역은 법원 간부와 경

찰이 맡았다. 하여 이 영화는 법원의 재판 문화, 인민을 위한 취지, 법원 간부와 경찰의 지혜가 응집된 영상 작품이다.

연길시인민법원 당초 서기이며 원장인 김광석은 축사에서 연길시인민법원은 시종 문화로 법원을 건설하는 사업구상을 견지하고 변강 민족지역의 특점과 결부하여 범치문화 건설과 재판집행 사업의 유기적인 융합을 깊이있게 추진하며 법원 특색이 있는 문화작품을 힘써 구축

로 중국꿈 함께 이룩한다’는 위대한 실천의 연변 화폭을 생동하게 펼쳐 보였다.

전람은 통사 전시와 기본 진렬의 형식을 통해 특색을 돌출히 하고 정교하게 제작한 데서 관중들에게 참신한 감상 체험을 선물했다. 연변박물관 관장 김명화의 소개에 따르면 본 전람은 내용을 한층 더 풍부히 했는바 하나의 전문 전시청을 내와 청나라에서 민국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연변의 력사를 소개했다. 즉 이 시기 많은 관내의 한족 인구가 ‘관문을 넘어’ 밀려들었고 백성들 또한 강을 넘어 건너와 중화민족 대가정을 이루었다. 이로써 여러 민족이 연변 대지에 모여 서로 융합되고 간고하게 개척하며 공동으로 삶의 터전을 건설한 창상의 력정을 집중적으로 보여졌다.

전람 형식에서는 스마트 기술과 문물을 융합시켜 대량의 예술 조형, 정경 복원 그리고 디지털 다매체 전시 수법을 빌어 더욱 새롭고 더욱 신기하고 더욱 체험감을 지닌 참관 환경을 관중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의 전파 기능을 제고하고 박물관의 생기와 활력을 발산함으로써 박물관으로 하여금 력사 문화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전파하는 진지로 되게 했다. 박물관은 또 자기의 소장 문물의 기초에서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길림대학교고고학원, 길림성박물관, 연변내의 현, 시 박물관 등에서 문물들을 빌려다 전시했는가 하면 또 민속전시품을 모집해 진렬 전시를 함으로써 문물 전시품의 종류가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도록 했다.

2023년 연변박물관에서는 연인수로 45만명의 관중을 접대했다. 이번 연변박물관의 정채로운 승격은 관중들로 하여금 탐구와 발견 속에서 지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에 대한 리해와 동질감을 깊이하도록 한다.

/ 본사기자

〈흑신화〉의 돌풍에 게임 속 명소 인기 ‘급상승’

— 산서성 고건축물 촬영지 36곳중 27곳 포진

우리 나라 최초의 트리플 A(AAA)급 게임 대작 〈흑신화(黑神话)〉: 오공(悟空)이 전세계 게임 마니아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게임 속에 배경으로 등장한 실제 명소들도 게이머들의 주목을 받으며 ‘핫플’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 속의 배경은 국내의 36곳 명소에서 모티브를 따왔는데 산서성내의 명소가 27곳에 달해 고건축물이 많기로 이름난 산서성에 다시금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산서성에는 이동할 수 없는 문물이 5만 3,875곳 있다. 이 가운데 전국 중점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된 곳이 531곳이다. 이는 우리 나라 전체의 10.5%로서 전국 1위를 차지한다. 현존하는 고건축물은 2만 8,027곳으로 전국의 약 10%를 차지한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산서성 진성시 옥황묘관광지를 찾은 여행객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 잠정 통계에 따르면 최근 방문객의 약 50%는 〈흑신화: 오공〉을 통해 이곳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옥황묘관광지 관계자는 “9월—10월 여행 성수기에는 여행객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4대 명작의 하나로 꼽히는 《서유기》를 모티브로 제작된 〈흑신화: 오공〉은 게임 속에 대량의 중국 전통문화를 재현해냈다. 특히 배경으로 사용된 수십곳의 명소는 국



▲ 불공사 석가탑

내 여러 성 지역에 걸쳐있다.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옥황묘관광지에 채소(彩塑)벽화박물관 ‘디지털화 전시홀’, 동방별하늘문화연구센터 등이 설립됐다고 소개했다. 옥황묘관광지는 소중한 지상문화유산을 더욱 잘 보존하기 위해 전문적인 복원 작업을 여러차례 실시했다. 30개의 건축물을 전면 보수했고 284개의 조각과 120평방미터 면적의 벽화도 복원했다.

옥황묘관광지 직원은 점점 많은 게이머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와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임 열기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를 방문해 게임 속 중국의 전통문화를 깊이 체험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신화넷



▲ 관음당

〈흑신화〉오공의 연기자는 누구?

최근 온라인 게임 〈흑신화: 오공〉이 화제다. 정교한 게임 화면에 감동적인 스토리 전개는 물론이고 특히 게임 속 동작에 모두가 열광한다.

이들 동작은 어떻게 제작되는가? 게임 속 캐릭터를 재현하고자 게임 제조업체는 대량의 동작 포착 기술과 전문 동작 포착 연기자를 투입한다.

해당 의상을 입고 몸에 빛을 반사하는 것을 부착한 동작 포착 연기자의 동작을 여러대의 카메라가 360도로 촬영해 가상 데이터로 포착한 다음 수정 작업을 통하면 게임 속에 생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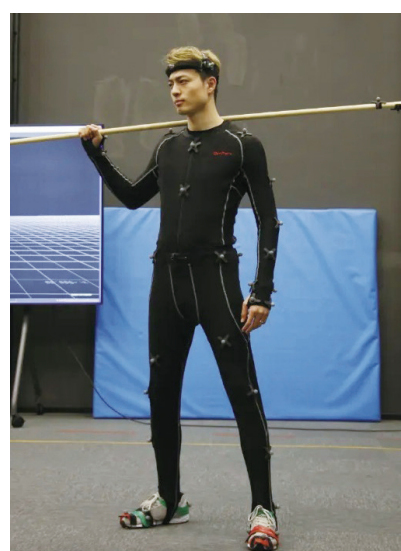
산동 치박에서 온 은개는 게임 주요 캐릭터인 ‘천명인(天命人)’의 대다수 동작 포착을 맡았다.

처음 《서유기》를 소재로 한 게임에서 오공 역할을 맡게 된다고 했을 때 은개는 엄청 흥분했다. 그는 “누구나 어렸을 때 손오공을 꿈꾼 적이 있을 것이다. 나도 어려서부터 무술을 배웠는지라 이 촬영에 제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게임에서 캐릭터의 모든 동작, 연결 동작은 세심한 작업을 거쳐야 한다. 연기에서 싸움의 치열함과 함께 동작의 아름다움도 함께 연출해야 하기 때문에 은개는 중국 무술과 희곡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했다.

동작 포착 연기자는 몸으로 캐릭터의 개성을 살리면서 동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은개는 세심한 관찰 작업에 애썼다. 예를 들면 ‘천명인’의 원숭이 기질과 충기를 나타내 고저 연구하고 모방하고 했다.

은개는 동작 포착 연기자의 일은 무대 뒤의 일로 “한 캐릭터의 동작을



▲ 오공의 ‘실제인물’ 은개(殷凱)

완성한 후 게임 생성 효과를 보고 적합하지 않으면 다시 동작 포착 작업을 만족할 때까지 하는데 한번은 촬영이 아침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은개는 상해체육대학교 공연학과를 다녔다. 그는 “우리 학교 공연학과는 동작 연기자를 양성하는 곳으로서 다른 학교의 형체과목의 경우는 춤을 배우지만 우리는 무술을 배운다.”고 했다.

한번은 게임회사에서 학교를 찾아와 동작 포착 연기자를 선발했는데 당시 은개도 뽑혔다. “그때부터 동작 포착을 접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그 일을 부업 정도로 생각했지만 계속 촬영하다 보니 생업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근 은개는 동작 포착 회사를 설립하고 〈평화정영〉(和平精英: 배틀그라운드 중국판) 등 게임 속 캐릭터를 연기하기도 했다. / CCTV 뉴스

연길시법원 미니영화 《무포법관》촬영

국가 보물 첫 집중 전시, ‘진시황릉 고고발견전’

올해는 진시황 병마용 발굴 50주년 이 되는 해이다. 이를 맞으며 ‘천고 제1황제의 지하왕국—진시황릉 고고발견전’이 지난 8일, 섬서성 서안시에 위치한 진시황제릉박물관에서 개막되었다. 전시회에는 진시황릉의 모습과 가치를 전방위적이고 다각도로 보여주는 230점(세트)의 문물이 전시되었다. 이는 진시황릉 고고발견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집중 전시되는 것이다.

이중에 진시황제릉외성동문유적,릉침건축유적, 사관유적지 및 릉서1호 순장묘에서 출토된 문물들은 처음

으로 전시된다.

전시는 진시황, 려산위릉, 궁관백관, 지하군단, 황실령지, 궁정오락 등 8개 단원으로 나뉘여졌다. 위풍당당한 고급갑옷군용, 정교하고 묵직한 돌갑옷, 진나라 고고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청동물새, 금은약부중, 려산원동중, 진시황릉 고고에서 발견된 체량이 가장 큰 ‘진릉제일정’ 등은 진시황릉 ‘지하왕국’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모습과 진나라를 주축으로 한 위대한 시대를 보여준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진시황제릉박물관에서 병마용을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 ▶

